

# KBS 새 이사회 구성

KBS 새 이사진이 내정됐다. 방송위원회는 6월 15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KBS이사 11명을 선임하고, 1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. KBS이사 선임을 위해 방송위원회가 6월 4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을 실시한 결과 96건, 81인이 추천됐다.

금번 이사회의 특징으로는 여성 비율 확대와 젊어진 이사진, 시민·시청자단체 의견 적극 반영 등을 꼽을 수 있다. 우선 여성이 종전 한 명에서 세 명으로 그

비율이 크게 높아졌으며, 평균 연령이 64.4세에서 57.4세로 대폭 낮아졌다. 40대 이사도 두 명이나 선임됐다. 또한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·시청자단체에서 추천된 인사가 세 명이나 선임됐다.

방송위원회는 조만간 KBS이사회에 대한 추천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. KBS이사회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.

### KBS이사회 추천 명단

-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전응덕(연임, 71세) |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       |
| 김우철(65세)     | 전 울산방송 사장          |
| 이종수(63세)     |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     |
| 이영덕(58세)     |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       |
| 이형모(57세)     | 전 KBS 부사장, 연노련 위원장 |
| 윤수경(57세, 여)  |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    |
| 박범신(연임, 57세) | 명지대 문예창작학과 교수, 소설가 |
| 이영자(54세, 여)  |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      |
| 김인규(53세)     | 전 KBS뉴미디어 본부장      |
| 김상희(49세, 여)  |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     |
| 박원순(47세)     |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, 변호사  |

## 우리는 KBS인

# NLE의 일인자 보도본부 영상취재 최기홍 차장

최기홍 선배는 욕심도 많고 능력도 많은 선배다. 사내 최고의 NLE 전문가가 된 동력은 선배의 바로 그 욕심(?)이다. 개인 홈페이지(www.choisworld.com)를 갖고 있는데 컴퓨터 실력 역시 수준급이다. 최 선배의 홈페이지는 개인 홈페이지로는 드물게 접속회수 280만 회를 자랑하는 인기 사이트다. 이처럼 훌륭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도 선배의 바로 그 욕심(?) 때문이다. 느릿하고 조용한 말투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인상과 달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최 선배. 영상취재의 한 욕심(?)하는 최기홍 차장을 소개한다. (유민철 보도 영상취재 사보기자)



NLE작업 중인 최기홍 차장



NLE 최고 인기 강사 최기홍 차장

### 업무도 바쁠 텐데 NLE 교육을 자원하고 나선 이유는?

처음 NLE를 접했을 때 그 힘을 직감했다. 변하는 환경에 빨리 적응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. 무엇보다 각 직종에서 직접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하루 속히 NLE를 접하고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직접 나섰다.

### NLE(Non-Linear Editing)란?

영상을 테이프가 아닌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편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 테이프를 앞뒤로 돌려가며 편집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. 노트북에서도 덩치 큰 기계에서나 가능했던 각종 특수 효과 등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.

### 반응은?

촬영기자, 카메라맨, 편집요원, PD 등 영상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, 지금까

지 300여 명 정도가 수강했다. 강의 받는 사원들의 열의가 높다. 호기심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점심도 거르면서 실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. 기기 사용법에 그치지 않고 현업 기자로서 제작에서 지켜야 할 원칙,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어 호응이 높은 것 같다.

### 뉴스 영상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한 마디?

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화면조작이 손쉬워졌다. 그럴수록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. 뉴스영상은 사실성, 진실성이 생명이다. 인위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한다거나 화면 구성에 과도한 기교를 부리면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시청자들이 외면하게 된다.

### 좋은 영상을 만드는 특별한 기술은?

기기사용법은 장비업체에서도 가르친다. 하지만 취재 현장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나 영상편집을 실제로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영상

이론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. 영상 제작 실무자는 기술과 함께 방송과 영상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.

최 선배가 강조하는 영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은 20년 이상을 뉴스 현장의 최일선에서 촬영기자로 뛰면서 얻어진 것이다. 전국 촬영기자들의 모임인 카메라기자회의 회장과 사무

국장을 역임하면서 뉴스에서 몰래카메라와 재연 금지를 선언하기도 했다. 그 결과 방송뉴스에서 무분별한 재연과 몰래카메라가 거의 사라지기도 했다.

욕심(?) 많은 최 선배가 앞으로도 계속 욕심을 부려 시청자에게 좋은 영상을 오래도록 제공하는 게 이 후배의 욕심(?)이다.

### 영상취재 길라잡이

최기홍 차장을 포함한 18명의 영상취재기자들이 총 9권으로 구성된 '영상편집 길라잡이'를 펴냈다. 1권 '영상의 이해' 편에서는 영상이론과 뉴스 취재, 제작의 가이드라인, 초상권 문제 등 뉴스실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. 2권에서 9권까지는 국내의 대부분 NLE 장비에 대한 사용법을 기술하고 있다. 현업 사용자가 취재, 제작의 노하우와 지침을 기술하고 있어서 실무 활용도가 높다.

